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신 용인시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 주간동향(23.7.24.-7.28.) 안내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복지 주간동향(23.7.24.-7.28.)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 주간동향(23.7.24.-7.28.) 1부. 끝.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신자

간사 홍누리

사무국장 박미숙

실무협의체
위원 공석

대표협의체
위원 장한숙

협조자

시행 용인지사협 - 331(2023. 7. 26.)

접수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제2별관

전화 (031)323-0281 전송 (031)323-0282 / yiwelfare@hanmail.net

/ 공개

사회복지 주간 동향(23.7.24.~7.28.)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든든한 삼계탕 드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출처:신봉동행정복지센터)

-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복을 앞두고 주민단체와 용인농협 본점 등이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보양식을 대접했다고 18일 밝힘
 - 지난 17일 수지구 풍덕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례)는 홀로 어르신 14가구를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과 밀반찬을 직접 전달
 - 기흥구 영덕1동은 지난 15일 수원영은교회 내 마을공동체 봉사동아리 영덕동 마을쟁이(대표 이사무엘 목사)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 70가구를 방문해 추어탕과 육개장 등 보양음식(112만원 상당)을 전달
 - 지난 14일에는 처인구 양지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정구자)가 홀로 어르신 72명을 찾아가 직접 만든 삼계탕을 전하고 안부를 확인
 - 같은날 수지구 신봉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경순)가 저소득 가정 20가구를 방문해 전기구이 통닭과 계절과일을 전함
 - 지난 12일에는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농협 본점이 (사)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구지회 부설 양지노인대학 어르신 100명에게 삼계탕을 대접

- 수지구 성북동에서는 지난 12일 통장협의회(회장 이인열)가 저소득 가정 5가구에 직접 만든 삼계탕과 과일을 전하고, 앞서 10일엔 새마을부녀회(회장 유미자)가 저소득 가정 10가구에 삼계탕을 나눔
 - 동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손길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든든한 보양식은 취약계층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양지면, 영덕1동, 신봉동, 성북동, 풍덕천2동 맞춤형복지팀)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해복구 성금 기탁



- *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흥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힘
- 동은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보내 이재민에 전달되도록 할 예정
- 김영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바라는 취지에서 위원들과 마음을 모았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기흥동 맞춤형복지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용인특례시 곳곳에서 이웃사랑을 위한 음식 나눔 행사 열려
<중복 맞아 어려운 이웃에 보양식 전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단체들>



(출처:서농동행정복지센터)



(출처:죽전2동행정복지센터)

-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지역 내 봉사단체들이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양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
 - 지난 18일 기흥구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저소득 홀로어르신 30가정을 방문해 삼계탕과 포기김치, 밀반찬이 담긴 ‘사랑의 복달임 꾸러미’를 전달,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한 협의체 위원들은 음식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말벗’ 역할을 함
 - 권영지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지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여름 보양식을 마련했다”고 말함
 - 같은날 수지구 상현2동 새마을부녀회는 중복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반찬세트를 전달
 - 부녀회 측은 직접 재료를 손질해 요리한 반찬 3종세트를 저소득 가구에 전달
 - 상현2동 새마을부녀회 신연순 회장은 “장마와 무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데이’ 사업을 마련한 죽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역 이웃에게 삼계탕을 18일 전달
 - 행사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들은 홀로 어르신과 노인부부 30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묻고 음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짐
 - 죽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순구 위원장은 “무더위와 장마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보양식을 대접하게 됐다”고 말함
 - 중복을 앞두고 처인구 남사읍 새마을부녀회도 18일 홀로 어르신 100여 가구에 삼계탕과 과일이 든 복달임 음식을 전달
 - 새마을부녀회는 지난달 열린 ‘처인성 문화제’ 행사에서 마련한 수익금을 활용해 음식을 전달
 - 이경애 남사읍새마을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처인구 유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지난 20일 어르신들에게 갈비탕 20그릇을 전달하고, 지역 내 한누리지역아동센터와 사람샘지역아동센터, 사립문 자원봉사단체 아동들에게 치킨 68마리를 전달
 - 이번 행사는 유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유림동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참여
 - 고상혁 유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과 아동들이 건강한 영양식으로 건강을 잘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 기흥구 영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중복을 앞둔 지난 20일 지역 내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짐
 - 협의체 위원들은 50가구를 선정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

- 이재훈 영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함
 - 지난 21일 수지구 성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희숙·민간위원장 이명희)도 중복을 맞이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10가구에 보양식과 냉방 용품을 전달
 - ‘건강한 여름나기 복 드림 사업’은 성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중 하나로,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마련한 재료를 활용해 음식을 조리함
 - 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돌봄 사업을 진행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겠다”고 말함
 - 기흥구 마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든든하고 건강한 여름만들기’ 복달임 사업을 21일 진행
 - 이종현 마북동주민자치위원장이 직접 재배한 열무를 후원 받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들은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직접 만든 열무김치를 비롯해 삼계탕과 과일세트를 지역 내 홀로 어르신 30가구에 전달
 - 홍용식 마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정성을 담아 만든 열무김치와 삼계탕, 과일을 어르신들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함
 - 기흥구 동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21일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갈비탕 40세트를 지원
 -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 내 위치한 음식점에서 구입한 갈비탕을 저소득 가정 30가구에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물음
 - 광근배 동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중복을 맞이해 저소득 가정에 보양식을 전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복달임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남사읍, 유림동, 서농동, 영덕1동, 마북동, 동백동, 상현2동, 죽전2동, 성북동 맞춤형복지팀)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과일 지원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홍용식)가 지난 21일 취약 가구를 위한 비타민 충전 과일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중증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30가구를 방문해 복숭아, 참외, 거봉, 망고, 샤인머스켓 등 8종을 담은 과일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함
- 홍용식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에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자주 과일을 사드시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을 하게 됐다”며 “신선한 과일이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운 여름 비타민 가득한 과일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한다”고 전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마북동 맞춤형복지팀)

5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청소년에 급식카드 지원



*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홍용식)가 지난 21일 저소득 가구 청소년 47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급식카드를 지원했다고 25일 밝힘

- 급식카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홍용식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카드를 지원했다”며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마북동 맞춤형복지팀)

6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상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정에 선풍기 지원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부환)가 저소득 가정 20가구에 선풍기를 지원했다고 25일 밝힘
- 협의체는 지난 22일 대상 가구를 방문해 선풍기를 전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점이 없는지 살피며 안부를 챙김
- 김부환 위원장은 “무더위와 장마로 덥고 습한 가운데 취약계층 이웃의 건강이 염려돼 선풍기를 마련했다”며 “이웃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상현2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 '발 보조기' 보험급여 적용

< 7월 2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준금액의 최대 90% 지원 >



- *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힘
 -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음
 -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음(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
 -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 지난 8년간('15~'22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드러나 >
< 보호출산제 도입, 주민등록-실거주 일치 여부 조사 추진 >

*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6.28.~7.7.)를 완료했다고 밝힘, 이번 전수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 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수)부터 진행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

(단위 : 명)

구분	소계	지자체 확인완료					의료기관 오류	소계	수사의뢰 (지자체 → 경찰)		
		생존 확인(771)			사망	수사 중			경찰 수사(1,095, 7.14. 기준)		
		출생신고 완료	출생신고 예정	해외출생신고					수사 중	수사 종결	
								생존 확인	사망*		
2,123	1,028 (48.4%)	704	46	21	222	35	1,095 (51.6%)	814	254	27	

· 사망 아동 27명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 송치(7.14. 기준)

(1)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 : 1,028명

- 총 2,123명 중 지자체는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
-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 중 ▲출생신고 이미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0%), ▲해외 출생신고 21명(2.7%)
- 출생신고 예정 아동(4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 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
-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은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
-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35명)은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된 경우

- (2)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 : 1,095명
- 지자체는 총 1,095명(51.6%)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범죄 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
 -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
 -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 이 중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
 -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종합 결과 >

(단위 : 명)

소계	생존확인	사망	수사 중	의료기관오류
2,123	1,025	249	814	35

- (3)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아동(771명) 정보 및 보호자 정보
-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의 양육상황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
 -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

< 서비스연계 사례 >

- B아동은 현재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으로, 어머니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하고 싶으나, 비용부담 등으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민센터 담당자는 소송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하였고, 아동의 예방접종을 위해 관할 보건소를 연계, 필요 시 공적급여를 지원할 예정

< 출생신고 지원 사례 >

- C씨는 교제하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녀를 출산, 처음에는 남자가 아이를 양육하다가 본인이 홀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음, 뒤늦게 남자 쪽에서 출생신고를 안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출생신고를 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기초수급자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걱정되어 출생신고를 안하고 있었음
주민센터 담당자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 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완료,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

-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

< 출산당시 보호자 연령 >

(단위 : 명)

소계	10대	20대	30대 이상
2,123	230	866	1,027

< 한부모 사례 >

- 보호자 A씨는 아동을 출산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하였고,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아동을 입양 보낸 사실이 확인, 가정방문 시 거주환경이 불안정하여 복지상담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것을 안내

(4) 향후 후속 조사계획 및 방안

-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
 - 우선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법무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복지부),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안부)를 실시
-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을 법무부 측의 등록외국인 정보와 대조하여 아동의 외국인등록 여부 및 출국 여부를 확인
-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을 운영
-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병행하여 추진
- 더불어, 예방접종통합정보시스템(질병청)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급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
- *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 특히 출생통보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24년 7월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계획
 -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 아울러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7.17)됨, 정부는 법사위의 형법 개정안 의결 취지에 따라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지속 할 계획
 - 더불어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아동복지정책과/출산정책과/급여기준과, 행정안전부 주민과, 법무부 이민정보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 <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 >
- <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재난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 추가 지원 >

-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힘
 -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지자체에 폭우 피해 가구 등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 공문 안내)
 - 또한,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 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 가능
 -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
- ※ 보도자료 참조(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

< 8월부터 31개 시·군·구에서 시간제보육 통합반 서비스 제공 시작 >
< 6개월~5세 아동까지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

-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힘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 기존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1차 시범사업(2022.9월~2023.2월)을 운영하였으며, 1차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추진
 - ▲이용대상자 확대 : (기존)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확대) 6개월~5세
 - ▲운영시간 확대 : (기존) 09:00~16:00 → (확대) 09:00~18:00
 -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참여지역 공모 및 선정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31개 시·군·구, 136개 어린이집, 204개 반을 대상으로 진행
 - 서울(강서구, 동작구, 송파구, 중랑구, 양천구), 부산(강서구), 대구(동구, 북구, 중구), 인천(계양구, 서구, 연수구), 광주(남구, 북구), 대전(서구, 유성구), 경기(김포시, 안산시, 용인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충남(천안시, 청양군), 전북(전주시), 전남(강진군, 담양군, 장흥군, 화순군), 경북(구미시)
 -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시범사업 동안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6개월~5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참여 어린이집별 운영반 현황이 다르므로 각 기관의 운영현황 확인 필요
 - ① 오전 9:00~12:00, ② 오후 13:00~16:00, ③ 오후 2 16:00~18:00, ④ 종일 10:00~15:00
 - 7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가능하며,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
 -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부모부담금을 현행(독립반)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
 - 부모급여(현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시간당 1천 원(월 40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 원)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 시범사업 기간 정부지원금은 월 4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4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 가능, 보육료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와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가능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한국보육진흥원 정책사업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사업부)

5 중앙정부 복지현안

지역특화 치매서비스를 추진한다!

<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위한 48개 치매안심센터 선정 >
<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 도모 >

-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의 치매안심센터 선정
 - 전국 256개 시군구에 구축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
 -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기획력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치매관리사업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 광진구 등 48개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했으며, 총 1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
 - 향후 선정된 치매안심센터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다른 지자체에 경험을 적극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2023년 치매관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사업 추진이 우수한 지자체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
 -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선도사업의 주요 내용
 - 경상북도 포항시는 치매환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포괄적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일상생활, 돌봄·요양, 안전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
 - 전라북도 남원시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보호자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인력을 통한 개인별 상황 맞춤 돌봄서비스(인지교육, 안전, 일상생활 지원 등)를 제공
 -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치매조기발병 환자에 대해 치매안심마을 내 카페를 연계하여 매장관리 등을 통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예정
 - 전라남도 담양군은 치매환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치매 상황극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인식개선을 도모할 예정
 - 울산광역시 북구는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합창단을 구성·운영하여 음악 활동을 통한 치매환자의 인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예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리정돈 방법 교육, 집안의 동선 변화에 대한 인지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
-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